

지방 기계업체 광역시 위주 분포 자체 생산품 이외 타사 제품 판매 많아

■ 취재/ 정한상 jeong@mbakery.co.kr

국내에는 제과제빵 관련 기계업체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 지역적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 있는 업체 비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부산과 같은 광역시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제과기계업체의 경우 사업 규모가 영세한 업체가 많은 편으로 이 같은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업체의 채산성이 좋지 않은 것은 수도권 업체와 달리 시장이 연고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수요 창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제과기계를 서울 소재 업체에서 지방 제과점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 운영 및 A/S 업무 주력

지역 연고 기계업체의 경우 서울 소재 업체와 달리 자사 생산품 판매 이외에도 타사 제과기계와 소도구의 판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 업체에 비해 생산 설비와 인력, 기술 등이 부족한 것에 원인이 있지만 제과점에 기계 납품시 한 두 가지 제품 판매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 기계업체 중에는 자사 제품 생산보다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기계업체의 대리점을 겸해 판매와 A/S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서울과 지방 기계업체가 공생적인 구조로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일례로 서울 소재 업체는 지방 제과점에 납품한 기계에 고장이 생길 경우 거리와 시간, 경비의 부담을 안고 서비스를 해야한다. 이 경우 지방 주요 도시에 자사와 계약을 맺은 기계업체가 있다면 신속하게 A/S를 실시해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지방 기계업체도 자사 생산품의 판매로만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러한 A/S 수주는 회사 경영에 있어 필수 사항이 됐다.



지방 기계업체는 대체로 중앙 업체에 비해 인력이 적어 사장 혼자나 소수의 종업원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 업체에 고용인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 발생이 적은 것에 원인이 있지만 제과기계업체에서 경력을 쌓은 기술인이 소규모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 기계업체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지방은 서울과 달리 기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라 무조건 싼 것만 찾는다”며 “오븐의 경우 부품 값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가격 변동이 없을 정도다.”고 말했다. 결국 제품 생산과 A/S를 경영자가 못할 경우 인건비 때문이라도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업체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품 다양성 적고 전문업체 드물어

이밖에 일부 기계업체는 반제품 조립과 작업대 등 간단한 제품 생산만을 하고 그 이외 기계는 외부 업체에서 제작하고 있다. 특히 쇼케이스의 경우 부산 영광쇼케이스가 한가지 품목만을 생산하는 것을 제외하면 쇼케이스 전문업체가 드문 실정이다. 대부분 업체는 쇼케이스 제조 이외에 믹서나 오븐 등 기타 제과기

제도 병행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살펴보면 오븐, 믹서, 발효기, 슬라이서 등 기본적인 제과기계 비중이 높았다. 이밖에 도우컨 디셔너 파이롤러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 소재 업체와 비교해 제품 다양성과 기술 수준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렇지만 신신공업사 같은 업체는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바움쿰렌 제조기를 국내 최초로 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지방 기계업체 중에는 인테리어나 제과점 컨설팅을 겸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소재 신화제과기계는 쇼케이스 생산 이외에 제과점 인테리어 시공을 하며 우정제과기계상사의 경우 제과점 개업상담, 컨설팅, 인테리어 시공까지 종합적인 서

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일하는 여성의 집 등에서 홈메이드 베이킹 코너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 기계업체도 나름대로 기술 개발과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고정관념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품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외제가 좋다든지 서울쪽 기계가 낫다는 식의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싼 가격만이 판매의 기준이 돼 제품의 질을 높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지방 기계업체가 기존의 우수 업체와 대등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제과인들의 올바른 판단과 기계업체의 적극적인 자기 계발이 선행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1]

■ 지방기계업체 현황

지역	업체명	설립년도	대표자명	소재지	생산품목	취급품목	비고
인천	인천제과기계	1980년	이성선	인천시 남구 도화1동	쇼케이스 및 셸프다이	제과, 피자기계 및 냉동냉장고	
	현대공업	1998년	이대석	인천시 남구 주안6동	오븐, 발효기, 평대, 믹서	제과기계류 일체	
	윤성냉동쇼케이스	1995년	윤기범	인천시 남동구구월동	셸프 다이 외주 생산	제과기계류 일체	
부산	제일공업사	1988년	김정철	부산시 중구 부평동	전기오븐, 발효기, 믹서, 슬라이서, 작업대 쇼케이스, 랙크	아이스크림기계, 슬러쉬기, 제과기계류 일체	
	오성공업사	1980년	김은택	부산시 중구 부평동		제과제빵기계 및 피자 아이스크림, 패스트 푸드 장비	수입기계 전문 취급
	영광쇼케이스	1992년	강성길	부산시 서구 토성동 2가	쇼케이스 전문 생산		쇼케이스 전문업체
	신신공업사	1980년	김대봉	부산시 진구 전포 2동	믹서, 슬라이서	오븐, 발효기, 소도구 등 제과기계류 일체	
	신일공업사	1976년	이기존	부산시 중구 부평동 1가	믹서, 전기오븐, 발효기, 슬라이서, 작업대	제과 소도구 일체	
	동림쇼케이스	1994년	남호명	부산시 중구 부평동	쇼케이스, 평대, 셸프다이	제과기계류 전반	
	대전	대전기계	1989년	유지승	대전시 동구 자양동	냉장고 조립 생산	오븐, 믹서 등 제과기계류 일체
대전	태평기계	1985년	김동철	대전시 중구 태평 1동		쇼케이스 등 제과기계류 일체	
	근수산업	1995년	권계근	대전시 동구 삼성동	작업대, 냉동기기 반조립 생산	제과기계류 일체	
	부흥기계	1978년	전영수	대전시 북구 칠성동	믹서, 슬라이서, 오븐	제과기계류 일체	
대구	대화기계	1990년	신상식	대구시 북구 칠성동	작업대, 도너츠기계 등 간단한 기계류	전기오븐, 쇼케이스 등	
	신화제과기계	1997년	김영안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쇼케이스, 도우넛 후라이어, 작업대	제과기계류 일체	제과점 인테리어 시공
광주	우성제과기계	1994년	박인수	광주시 북구 오치동	전기오븐, 믹서, 쇼케이스, 원목 진열대	수입제과기계, 업소용 주방기구, 냉동냉장고	제과점 컨설팅 인테리어시공
	울산	제일기계	1995년	최규찬	울산시 중구 태화동	믹서, 전기오븐, 슬라이서	제과 소도구류 일체

* 자료협조가 된 업체를 기준으로 광역시별로 분류함.